

중국 관광객 4300명 태운 대형 크루즈 광양 입항

오늘 오전에...순천 정원박람회장 등 방문 예정

광양시, 쇼핑센터 등 통역 배치·셔틀버스 운행

중국 관광객 3200여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28일 광양항에 올래 첫 입항한다.

이번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14만급 '로얄 캐리비안' 호(사진)로, 관광객 3200명과 승무원 1180명 등 4380명이 승선했다

이번 크루즈선은 부산항을 거쳐 광양항에 28일 오전 8시에 입항해 13시간 머물다 같은 날 밤 9시에 상하이항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이번 관광객은 중국내 35개 지사와 28개 서비스센터, 4000여개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건강제품 생산·판매

업체인 '우시앤지'사의 임직원과 중개상들로 정원 박람회장과 낙안읍성을 둘러볼 예정이다.

광양시는 크루즈선 입항에 대비해 최근 민·관 합동 회의를 갖고 손님맞이 준비에 나서는 등 '크루즈 관광' 효과를 지역 실물경제와 연결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시는 부두내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대형 쇼핑센터 및 먹거리 타운 활성화 등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통역 자원봉사자(영어·중국어) 배치 등 관광객과 승무원의 편의를 제공한

다.



28일 광양항에 입항하는 로얄 캐리비안호.

윤인후 부시장은 "지난해 5항차였던 중국 크루즈 관광이 올해 14항차가 예정돼 있다"면서 광양 서천면 불고기 타운과 장도 전수관, 구

봉산 전담대, 매화마을 등을 경유하는 코스개발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크

루즈선 입항에 맞춰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대규모 쇼핑센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대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한다

문광부 주관 전문기관 선정

전남 유일...내달 사업단 출범

순천대학교(총장 송영무) 사회체육학과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개 대학 중 전남지역에서는 순천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포츠산업 창업전문가 과정 ▲스포츠산업 관광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400여명의 스포츠산

업 전문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대 스포츠산업 인력양성사업단 김재필 단장은 "순천대는 광양만권의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킬 유일한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포츠산업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스포츠산업의 전문가 배출은 지역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스포츠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은 다음달 초에 출범한다. 올해 수강생 모집은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순천=매경기자 jjj@kwangju.co.kr

보성 문덕면 새마을부녀회, 장학금·사랑의 쌀 전달

보성군 문덕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선연자)가 인제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사랑의 쌀'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문덕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대원사와 백미미술관을 찾은 상춘객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200만 원을 보성군 장학재단(이사장 송현길)과 문덕면 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양희만), 문덕초(교장 김용국), 복내중(교장 김경중)에 각각 50만원씩 전달했다.

또한 문덕면 마을회관 14개소에 각 쌀 1포대(20kg)씩을 전달해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박정옥 문덕면장은 "문덕면을 방



문한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구슬땀 흘려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덕면 새마을부녀회는 평소 불우이웃에게 쌀과 김장김치, 밀반찬 등의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구례, 내년말 도시가스 공급

이달 주배관 공사 착공

읍 공동주택부터 단계적 진행

2015년 말까지 구례군에 도시가스

가 부분 공급된다. 구례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구례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반영돼 내년 12월 말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7월까지 산동면 이평리 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산동면 둔사리까지 주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곡성 고산터널~산동면 둔사리 구간 공사를

발하는 등 2015년 3월까지 산동면과 용방면, 구례읍 일대에서 주배관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배관 공사는 곡성은 도시가스 관리소로부터 구례읍 공급관리소(V/S)까지(총연장 28.5km) 사업비 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배관을 매설한 후 구례읍 도시가스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공급배관을 매설하게 된다. 공급배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사업비는 도시가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은 구례읍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앞으로 수요전망 및 필요성을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포스코건설-소방청 취약계층 지원 MOU

지역 4가구 선정 봉사활동

전기시설 점검·보수 계획

광양지역 포스코건설 현장직원들이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동참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에 따르면 이달 초 소방방재청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예방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광양지역 포스코건설 현장 직원들은 올해도 지역내 4가구를 선정해 화재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봉

사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할 계획이다.

이들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주택 화재에 방 차원에서 사전에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보수해 줄 계획이다.

또한 광양소방서와 연계해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최경중 상무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차원에서 봉사하게 됐다"면서 "에기치 않은 화재로 피해복구 능력이 약한 시민에게 실질적 지원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지난 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무장기포 기념제에 참석한 고창 주민들이 기포지인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귀농·귀촌학교(옛 신왕초)까지 당시 동학농민군 진격로를 따라 걷고 있다.

고창군, 무장기포 기념제 개최

동학혁명120주년 기념

세월호 애도...행사 축소

고창군은 지난 25일 공음면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무장기포(茂長起包)기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몰사고에 따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생략하는 등 축소 진행했다.

기념제는 출정사와 포고문 낭독, 헌화에 이어 기포지에서 공음면 소재 귀농·귀촌학교(옛 신왕초)까지 5.8km에 걸쳐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가 진행됐다.

한편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이날 귀농귀촌학교에서 '제7회 녹두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인 나가츠카 아카리 교수(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의 조선침략사 등 근대 한·일 관계사 진실 규명에 진력해 왔고 동학농민 혁명에 관한 역사적 진술 규명에 매진해 온 학자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 미생물센터,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확대·개편 산자부 승인

순창군 '미생물 관리센터'가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정관변경을 요청한 결과 최근 최종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미생물센터의 역할은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발효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분양 ▲순창메주공장 운영과 품질관리 지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 육성 및 미생물 자원화를 위한 사업수행'으로 기능도 확대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향후 군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건강·친환경 발효 미생물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혁신지원

기관으로서 발돋움하게 될 전망이다. 황숙주 군수는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순창의 건강·친환경 발효미생물산업 육성 관련 연작 피해 예방과 장수(長壽)관련 순창 건강미생물 지도 작성 및 건강식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또한 친환경 농업 관련 친환경 비료와 농약, 오·폐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 미생물 자원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될 미생물관리센터 전경.

단신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 '대학창극' 일반 참가자 모집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행사때 무대에 올릴 '대학창극'과 '나도야 소리꾼'의 아마추어 참가자를 5월 21일까지 공모한다.

대학창극은 판소리를 연극 형태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것으로, 국악과 관련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형식과 소재, 출연진 등에는 제한이 없으

나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팀은 축제 기간에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2차례 공연을 하게 된다. 나도야 소리꾼은 아마추어 소리꾼의 경연장으로 판소리나 민요를 즐기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농업기술센터, '영농현장 찾아가는 날' 운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지도 사업을 펼쳐기 위해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날(이하 찾아가는 날)'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된다. 담당 직원이 매주 담당지역 마을에 출장해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줌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술센터는 지역별 책임담당을 지정했으며, 품목별 현장컨설팅 시스템을 연계해 시기별 당면 영농지도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임 공중보건의 배치

순창군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이 의무복무 기간(3년)이 완료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신규 공중보건의(과)를 새롭게 배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에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응급실 내원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등 야간응급실 전문의를 고정 배치해 응급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도 새로 확보해 구립 보건지소와 유등 보건지소에 배치, 주민들이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 개최

고창군은 지난 24일 김인호 부군수 주재로 군청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2014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호 부군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로 자원관리는 물론 전시기동 동원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유관 기관간 총무계획의 연계성을 검토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돈독히 해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정읍시-서울대 사범대학·암연구소 고령친화도시 조성 MOU

건강·보건·복지 등 연구

세계보건기구(WHO) 고령 친화도시(AFC)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

의실에서 서울대 사범대학, 서울대 암연구소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김생기시장과 전태원 사범대학장, 송용상 암 연구소장은 '고령친화도

시 정읍'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로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

동협의를 구성·운영하고 교육·과학·건강·보건·복지·체육 등 지역사회 활동 증진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교육

을 살리고, 지역건강을 지키는 협력방안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대 사범대학과 암연구소는 지식봉사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지난 2월 부터 '정읍시 고령친화도시와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